광주일고 3학년 자율삭발 화제

"시간 절약·공부 집중 된다" 전원 까까머리

17일 오전 광주제일고 3학년 6반 교실.

'까까머리' 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수업을 경청하고 있었다. 교실 분위기도 타임머신을 타고 '상고 머리'가 유행했던 1970년대로 되돌아 온 듯했다.

광주일고 3학년생 전원은 지난달 삭발을 결행했다. 휴대전화도 담임 선생님에게 자진 반납했다. 3월이 되자 1, 2학년 후배들도 하나 둘씩 선배들의 삭발에 동참했다.

가뜩이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 10대 청소년 전체가 삭발을 한 것은 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진풍경이다.

두발 단속을 했다가 청소년 인권 시비가 벌어지기 일쑤인 요즘 세태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다.

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TV드라마 '꽃보다 남자' 등을 통해 '장발'이 청소년들의 유행 아이템이 된 요즘 광주일고생들의 삭발 투혼은 학부모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줬다.

광주일고 3학년생을 둔 학부모 조모씨는 "올해 고 3에 올라간 아들이 어느 날 휴대폰을 스스로 해지하고,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광주일고생들의 삭발 결의는 올 2월 '머리와 복장을 단정히 했으면 한다'는 이 학교 김병채 교장의 조언에서 시작됐다.

이 말을 들은 학생회장 박은총군은 다음날 '까까머리'를 하고 등교했다. 폭소가 터지고, 놀려대는 친구가 많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까까머리'는 점점 늘어났다.

'까까머리' 광주일고 3학년 학생들이 17일 오전 학교 본관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 달 중순 '삭발 스타일'로 변신한 이들은 "한 달이 지나자 밤송이로 변했다"며 쑥스러워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휴대전화도 반납… 면학 열기 고조

교사 열정·동문 모교 사랑도 한 몫

2월 말이 되자, 머리카락을 기른 학생이 오히려 유행에 뒤떨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까까머리'로 정신을 재 무장하자는 학생들의 글들이 올라왔다.

물론 교문 앞 두발 단속 같은 건 없었다.

박은총군은 "머리 손질시간 등이 줄어들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절약된다.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삭발을 하는 이유를 알겠다"며 '까까머리' 애찬론을 펼쳤다.

사실 광주일고는 몇 년 전만 해도 면학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았다.

'실력 광주'의 대표 주자였던 광주일고는 학력이 떨어지면서 한때 '천덕꾸러기 공립고교'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고등학교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는 서울대 합격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해도 있었다.

이는 재학생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신들조차 광주일고에 배치됐을 때 한숨부터 내쉬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진을 씻기 위한 광주일고 변화의 중심에는 교사들의 열정과 동문 선배들의 '모교 무한사랑'이 숨겨져 있다.

특히 평균 연령이 40대에 불과한 젊은 교사들의 교육열은 광주일고 변화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2009년 입시에서 서울대 3명, 연·고대 등 수도권 대학 20명, 의대 계열 9명, 교대 8명 등의 합격생을 배출한 것만 봐도 젊은 교사진의 힘을 실감할 수 있다.

광주일고 동문회도 매년 1억 2천만원의 장학금 기탁 등을 통해 후배들의 학업의식을 독려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결핵환자 30%가 20~30대 젊은층

전남대병원 환자 분석

사회활동이 왕성한 연령대인 20~30대가 결핵환자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대병원이 세계 결핵의 날(24일)을 맞아 지난 2004~2008년 호흡기내과를 찾은 결핵환자 2천836명을 분석한 결과, 20~30대가 전체 환자의 29.2%(835명)를 차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는 다른 전형적인 '후진국형' 발생 양상이다.

특히 20대는 16.2%(463명)로 19.2%(550명)를 기록한 60대에 이어 2번째로 많았으며, 70대 15.4%(441명) 보다는 오히려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50대는 13.8%(395명), 40대 13.6%(389명), 30대 13.0%(372명) 등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53.2%(1천522명)로 여자(46.8%, 1천341명)보다 많았고, 연도별로는 2004년 687명, 2005년 562명, 2006년 525명, 2007년 591명, 2008년 498명을 기록해 결핵환자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내과 권용수 교수는 "직장 스트레스, 무리한 음식조절 등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20~30대의 결핵이 많은 것 같다"며 "약을 복용한 지 2주가 안 된 결핵환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되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남구청 공무원 수천만원 횡령

광고물 수수료 등 빼돌려

자체감사 확인…경찰 고발

광주시 남구가 세외수입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동안 담당 공무원이 수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남구는 "직원 2명이 최근 4개월 동안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광고물 관리팀에 근무하는 정모(42·행정 7급)씨와 한모(38·기능 9급)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옥외광고물 수수료와 도로점용료 등 2천900만원을 빼돌렸다. 남구는 16일 횡령금액 전액을 정씨 등으로부터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 감사결과 정씨 등은 구청과 위탁 관계인 광고물협회가 구청의 공용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을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형호기자 khh@

11억 횡령 해남군 공무원 남편

강제 집행 피하려 재산 빼돌려

사회복지급여 11억원을 횡령한 해남군 여성 공무원의 남편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해남경찰은 17일 10억원대의 복지급여를 빼돌렸다가 구속된 해남군 7급 공무원 장모(여·39)씨의 남편 김모(43·7급 공무원)씨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6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고급 오토바이와 아내의 승용차를 판 돈 3천400만원을 아내의 동료와 자신의 친구 계좌로 입금해 재산을 감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돈을 빼돌린 2002년 6월 이후 부부가 월 300만~800만원을 쓰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점을 토대로 김씨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남편 김씨의 횡령사실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장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5천800만원 가량 많은 총 11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겉으론 게임장 벽 뒤엔 사행성 게임기 공장

경찰, 신고 받고도 허술한 단속 업주 놓쳐

광주 도심에서 사행성 게임기 제조공장을 갖춘 채 오락실 영업을 해온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됐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전화를 받고도 허술한 단속으로 눈 앞에서 업주를 놓쳤다.

1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운암지구대 직원 등 10명은 지난 16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5층짜리 모 건물 지하에 218㎡ 규모의 오락실을 차리고, 오락기 42대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건물 지하 출입구에 CCTV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로 차단 등의 대책없이 출입문을 뜯어내고 들어갔다.

이 때문에 업주와 손님 등은 이미 도주하고 말았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오락실 외벽에서 뒷문으로 이어지도록 설치한 비밀통로를 통해 도주한 것이다.

출동한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외벽을 만지던 중 길이 3m, 폭 1m의 비밀통로를 발견했다. 특히 비밀통로 한 켠에선 불법 게임기 38대와 함께 게임기 제조작업장(90㎡ 규모)도 발견됐다.

사행성 게임기 제조공장을 갖춘 채 오락실 영업을 해온 게임장이 단속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범인들이 이곳에서 불법 게임기를 만든 뒤 광주지역 등에 게임기를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음식물 제공 순천시의원 고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고교 총동창회장 취임식에 자신의 선거구민을 초청, 음식물을 제공한 순천시의회 K모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K모 의원은 자신의 총동창회장 취임식에 동창회원이 아닌 부녀회장, 통장, 이장 등 지역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초청장 654통을 발송해 자신을 홍보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26명에게 5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박정욱기자 jwpark@

카메라 훔친 교사 카메라에 '찰칵'

쌍나팔

○… 목포경찰은 17일 매장에 진열된 카메라를 훔친 모 초등학교 교사 김모(57)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께 목포시 산정동 모 대형 마트 가전제품 판매장에서 140만원 짜리 디지털 카메라를 훔친 혐의.

○…경찰은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를 훔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 매장에서 물건을 사 간 적이 있는 김씨를 용의자로 검거했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면 돌출행동을 하곤 한다. 처음부터 훔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 /목포=이상휴기자 lsh@